

광양시, 전남도 혁신박람회 우수사례 경연대회 최우수상

‘디지털 공감e 중간소음’ 체험관 인기 만점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최한 ‘2019년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시·군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전라남도 혁신박람회’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서 도시재생과 혁신을 접목하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기억의 터전 위에, 혁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전남 22개 시·군이 참여해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체험관과 전시관을 빈집과 빈 상가를 활용하여 운영했다.

올해 처음 열린 시·군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참여 시·군

혁신관 전시콘텐츠를 대상으로 ▲ 혁신성(30점) ▲ 실용성(20점) ▲ 효용성(20점) ▲ 확산가능성(10점) ▲ 전시완성도(10점) ▲ 전시관 근무태도(10점)를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양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박람회에서 광양시는 IoT 기반 중간소음 관리 장치 및 게이트웨이 등 생활소음 체험관을 운영하고, 중간소음 해결을 위한 ‘디지털 공감e 중간소음’ 관리시스템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디지털 공감e 중간소음’ 관리시스템은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중대형 성호아파트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중간소음 관리를

위해 공무원, 기술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스스로 해결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소음 측정 센서 보급 ▲아파트 관리사무소 모니터링 연계 ▲공감e가득 모바일 APP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2019년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시·군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선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시가 중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주도하는 문제해결 모델을 개발한 노력의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해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의 성과가 시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곡성군, 토란 디저트 팜파티 개최

오는 28일 곡성군 설전강 기차마을 정미공원 중앙무대에서 토란 디저트 팜파티 ‘토란은 맛있다’가 개최된다.

곡성군은 국내 토란의 최대 생산지로 지난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인증서를 수여받기도 했다. 그만큼 곡성군은 토란에 관한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팜파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참가자들은 팜파티를 통해 농산물 생산자와 해당 농산물에 대해 신뢰감을 쌓고 꾸준한 교류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수요자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팜파티는 토란파이 가공농가인 가람드 곡성다움, 자매가 3곳이 참여한다.

곡성=김명휘 기자



화순군, 청년캠프 ‘휴과 함께’ 2기 모집

화순군은 다음달 11일까지 화순에서 한 달간 살아보는 청년캠프 ‘휴과 함께’ 2기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 이외의 시·도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전남 지역 청년도 참가인원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청년캠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에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십만 원이며 전액 참가자들의 활동비로 사용된다.

캠프 참가자들은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30일 동안 화순에 살면서 지역을 알아보고 경험하게 된다.

동북면 숲정이 인근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생활하며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시골 생활을 경험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군, 인구교육으로 ‘인구늘리기’ 총력



영광군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이 군민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산 극복 군민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인구분야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은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가족의 소중함과 양상평등의식, 생명존중을 배우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는 손자손녀 양육에 따른 정서적 지원과 행복한 노년생활 꾸미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인구교육은 현재 총 20회에 걸쳐 초등학교 5개소에서 167명, 중학교 4개소에서 236명, 고등학교 4개소에서 398명, 노인대학교 2개소에서 166명, 치매교실과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267명 등 전 연령 총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플라워 쇼(Flower Show)개최

11월 1일부터 3일간

순천시 ‘미래 정원, 꽃으로 연출하다.’를 주제로 11월 1일부터 3일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만국가정원 Flower Sho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 디자인 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문 플로리스트와 일반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경연 분야는 플로리스트부(파티션 형태의 그린인테리어), 학생부(디자인 토포이러), 일반부(액자형태의 월 데코레이션) 3개 분야로 구성, 전국에서 응모한 10명의 플로리스트와 100명의 플로리스트 지망생이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하여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로 각 분야별로 상급과 함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수여하며 11월 3일까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로비에 전시된다.

공고문은 순천시청 또는 순천

만 국가 정원 홈페이지(www.garden.sc.go.kr), 한국가드너협동조합 홈페이지(www.gardensc.or.kr)에서 볼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국가드너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전자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유능한 화훼디자인인력 발굴과 화훼장식 기술 향상으로 화훼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화훼산업 발전에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농촌체험여행 3회차 프로그램 진행



나주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첫 시범운영하는 ‘농촌체험여행’ 3회차 프로그램을 지난 21일, 시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세지면 화담마을 등 4개소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험여행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진을 위해 조성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별 특색을 살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주요 관광지 탐방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왕곡면 덕실마을 ‘우리콩을 이용한 두부 만들기’, 세지면 화담마을 ‘원예공예체험’, 노안면 이슬촌마을 ‘농산물 수확체험’, 금안한글마을 ‘모시잇 한글꾸기 만들기’ 순으로 체험을 진행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A씨는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아이에게 농촌의 가치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체험객에게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탄탄한 8개 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현재 세지면 화담마을, 노안면 이슬촌·금안한글마을, 산포면 흥련마을, 문평면 명하죽빛마을, 다시면 동외골마을, 왕곡면 애코왕곡마을, 덕실 마을 등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